

벤츠 AMG·현대 N 라인 타고 서킷 달려볼까

벤츠, 오는 4월부터 'AMG 익스피리언스' 용인 스피드웨에서 진행 현대, 태안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2024시즌 운영 시작 평일 저녁 프로그램 '나이트 서킷' 신설... 직장인 퇴근 후 참여 가능

벤츠와 현대차그룹이 고성능 차량을 타고 서킷을 주행할 수 있는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나란히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1일 서킷 운전 경험을 선사하는 'AMG 익스피리언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용인 AMG 스피드웨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AMG 익스피리언스는 독일 메르세데스-AMG 본사에서 개발한 수준 높은 서킷 드라이빙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처음 선보인 이후, '펀 드라이빙'을 선호하는 애호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문 강사진들이 참가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춰 단계별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과거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에서 'AMG 익스피리언스'로 이름을 바꿔, 직장인도 퇴근 후 10만원으로 서킷 경험을 할 수 있는 AMG 나이트 서킷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특히 AMG 나이트 서킷 프로그램은 평일 저녁 6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되며, 야간 트랙 주행과 오토 코스 미니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AMG 디스커버(AMG DISCOVER) ▲AMG 퍼포먼스(AMG PERFORMANCE) ▲AMG 어드밴스드(AMG ADVANCED) 등 수준별 드라이빙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메르세데스-AMG SL이 체험 차량으로 새롭게 추가돼 오픈 에어링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다.

또 AMG 라운지에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AMG 디스커버와 AMG 퍼포먼스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부터 동반인 티켓(3만 원) 별도 구매가 가능하며, 참가자에게 AMG 라운지 점심 식사,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 관람, 택시 드라이빙 체험 등이 함께 제공된다.

AMG 라운지에는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AMG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게 됐다.

AMG 익스피리언스는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운영 사무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고객 체험 시설과 주행시험장



벤츠의 AMG 나이트 서킷 프로그램 진행 모습.



현대자동차의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전경.

이 결합된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가 다음 달 5일부터 2024시즌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충남 태안 126만㎡(38만평) 면적의 한국테크노링 주행시험장 내 만들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이빙 시설이다.

센터는 지상 2층·1만223㎡(3092평) 규모의 고객 전용 건물과 서킷, 고속주회로, 오프로드 등 8개의 주행 체험 코스를 갖췄다. 2022년 9월 개장 이

후 지난해까지 2만명 이상이 센터를 방문했다.

센터 프로그램은 드라이빙 기초부터 레이싱 테크닉까지 배울 수 있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와 연령과 관계없이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드라이빙 플래저'로 구성됐다.

현대차그룹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의 새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인제스피드우에서 '트랙 익스피리언스'를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은 아반떼 N, 아이오닉5 N, 아반떼 N1·N2 컵카(현대N페스티벌 참가 차량)를 타고 서킷 주행을

할 수 있다.

기아 EV6 GT를 타고 7시간 동안 성능 조작성과 주행을 배우는 고성능 전기차 전용 심화 교육 'GT 퍼포먼스'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된다.

'드라이빙 플래저'에서는 아이오닉5와 EV9에서 1박 2일 캠프를 하는 '캠핑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4~9세 어린이들이 참가 가능한 '주니어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 본상 수상

전기차용 '엑스타 PS71 EV'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생산하는 전기차용 타이어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호타이어는 11일 '엑스타(ECSTA) PS71 EV' (사진)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 (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4)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주최하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4년 시작된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올해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132명의 심사위원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72개국, 1만1000여개가 출품돼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수상제품인 엑스타(ECSTA) PS71 EV는 전기차용 타이어로,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해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일반타이어 대비 회전저항 성능을 극대화해 연



비 향상 등 전기차에 최적화된 성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호타이어가 실차 성능 평가를 한 결과, 기존 제품 대비 주행거리 115%를 기록했다.

또 상대적으로 엔진 소음이 적은 전기차 특성에 맞춰, 타이어 노면소음을 억제하는 신기술(신개념 패턴 디자인 적용 및 흡음재 폼 타이어 내측 부착)을 적용했다.

순간 가속력과 출력력이 높은 전기차의 구동 능력을 감안해, 노면 그립력을 높이고 내마모성을 향상시켰다. 또 전기차의 고장률을 버티기 위한 고강성 구조 설계로 구동력과 핸들링 성능을 개선했으며, 보강된 구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원하는 회전저항을 최소화해 전비 개선에도 탁월하다.

조만식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은 "시장과 고객의 니즈의 변화를 예측, 탐지하여 이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혁신적인 핵심 미래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과정에 고객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박현경

박인비

김민솔

벤츠코리아 엠버서더 박인비·박현경·김민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프로골퍼 박인비, 박현경, 김민솔을 올해 브랜드 엠버서더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브랜드 엠버서더로 선정된 박인비, 박현경, 김민솔은 앞으로 1년간 다양한 고객 행사에 참여한다. 이들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추구하는 최고라는 브랜드 핵심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 고

객과 소통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30년 전통의 아마추어 골프 대회 '메르세데스 트로피(Mercedes Trophy)'에 참여할 계획으로, 토너먼트가 없을 경우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에게 벤츠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EV9, '2024 영국 올해의 차' ...여성이 뽑은 최고의 차에도 선정

아이오닉5·클리오·EX30과 경쟁

기아는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사진)이 '2024 영국 올해의 차(COTY)'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영국 올해의 차는 자동차 전문지 탐가이(TopGear)와 카(Car), 오토카(Autocar), 왓카(What Car) 등에서 활동하는 기자 30명이 12개월 이내 출시된 차량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EV9은 1차 심사서 대형 크로스오버 부문 최고의 차로 뽑힌 후 부문별 최고의 자동차와 결합해 최종적으로 올해의 차에 올랐다. 경쟁 대상은 현대차 아이오닉5(패밀리카), 르노 클리오(소형차), 볼보 EX30(소형 크로스오버), 피스커 오션(중형 크로스오버), 혼다 시빅 타입 R(고성능차) 등이었다.

영국은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등록 비율이 36.5% 이를 정도로 전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EV9이 올해 1월 출시되자마자 최고의 차에 선정됐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기아는 전했다.

영국 올해의 차 어워드 공동 회장 존 칼렌은 "거



의 절반에 달하는 심사위원이 EV9을 올해의 차로 선택했을 만큼 매력과 신뢰감이 느껴진다"며 "EV9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어 전기차와 관련한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도도 높은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EV9은 '2024 여성 세계 올해의 차(WWCOTY)'를 수상했다고 기아는 밝혔다.

여성 세계 올해의 차는 52개국 여성 자동차 기자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안전성, 편의성, 기술

력, 가성비 등을 평가해 최고의 모델을 선정한다.

EV9은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미래 지향적 다목적 전기차', 친숙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대형 SUV'라는 호평받으며 63개 경쟁모델을 제치고 최종 선정됐다. 앞서 EV9은 ▲2024 북미 올해의 차 ▲2024 유럽 올해의 차 ▲2024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2023 뉴스위크 오토어워즈 '최고의 프리미엄 SUV' 등에 오른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남미 핵심 자동차시장 브라질서 한·일 완성차 업체 판매 각축전

현대차, 1월 도요타에 우위

친환경차 개발 투자도 경쟁

남미의 자동차 핵심 시장으로 꼽히는 브라질에서 한일 간 완성차 업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치열한 판매 경쟁은 물론 현지 맞춤형 친환경차 개발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이 한창이다.

11일 브라질자동차산업협회(ANFAVEA)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월 브라질에서 1만 4237대를 판매했다. 시장 점유율은 9.4%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가운데 4위에 올랐다.

이러 도요타는 1만3724대 판매량에 시장 점유율 9.0%로 5위를 차지했다.

같은 집계에서 1위는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피아트(3만8462대·20.3%)로 나타났다. 이어 독일 폭스바겐(2만2329대·14.7%)과 미국 제너럴 모터스(1만8917대·12.4%)가 2, 3위를 했다.

현대차와 도요타는 지난 2020년부터 브라질 판매 순위에서 앞치락뒤치락을 반복했다.

현대차는 2020~2021년 4위를 달리며 도요타보다 순위에서 1~2 계단 앞섰지만, 2022년과 지난해에는 도요타(4위)가 현대차(5위)에 한발 앞섰다. 작년에는 도요타(19만2309대)가 연간 판매량에서 현대차(18만6247대)보다 6000여대 더 많이 팔았다.

하지만 현대차가 새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올해 1월에는 우위를 보였다.

현대차와 도요타는 브라질에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친환경차 시장을 두고도 경쟁하고 있다.

현대차는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에서 완성차 조립 공장을 운영해 왔다. 2019년부터 본격 투자해 연간 생산 규모도 18만대에서 21만 대까지 늘렸다.

이 공장에서는 현지 전략 차종인 소형 해치백 'HB20'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크레타'가 주로 생산되고 있다.

HB20은 '현대 브라질 20'의 약자로, 사망수수를 발효한 에탄올을 휘발유와 섞어 쓸 수 있게 개발됐다. 브라질에서 휘발유와 에탄올을 합성한 바이오 연료가 활용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브라질 정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에탄올 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현재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80% 이상은 휘발유와 에탄올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퓨얼' 차량으로 추산된다.

도요타도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브라질을 적극 공략 중이다.

2019년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에탄올 연료를 결합한 준중형 세단 '코롤라'를 현지에서 출시한 도요타는 2021년에는 같은 형태 연료를 사용하는 준중형 SUV '코롤라 크로스'도 내놔다.

두 완성차 브랜드는 최근 브라질 친환경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정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다시우바 대통령과 만나 "현대차 브라질 법인과 현지 협력업체 등이 수소를 비롯한 친환경 분야, 미래 기술 등에 2032년까지 11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KG모빌리티, 대형 SUV '렉스턴 써밋' 출시

KG모빌리티(KGM)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렉스턴의 리무진 모델인 '렉스턴 써밋(Summit)' (사진)을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KGM은 지난해 3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렉스턴 리무진' 콘셉트 모델을 공개한 바 있다.

렉스턴 써밋은 2열에 2인승 천연 가죽 및 전동 슬라이딩 독립시트, 헤드레스트형 14인치 모니터 등 최상급 편의사양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

을 갖췄다고 KGM이 전했다.

2열 양문형 센터 콘솔에는 냉장고와 독서 등 조명,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컵홀더 등이 설치됐다. 14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며,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도 장착됐다.

또 파워 부스터와 도로 소음 억제 등을 위한 특수 설계, 20인치 저소음 타이어를 적용해 주행 및 코너링 성능을 개선했다.

첨단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 9개 에어백과 전



좌석 시트벨트 리마이너, 4중 구조 초고장력 '쿼드 프레임' 등으로 안전성도 높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